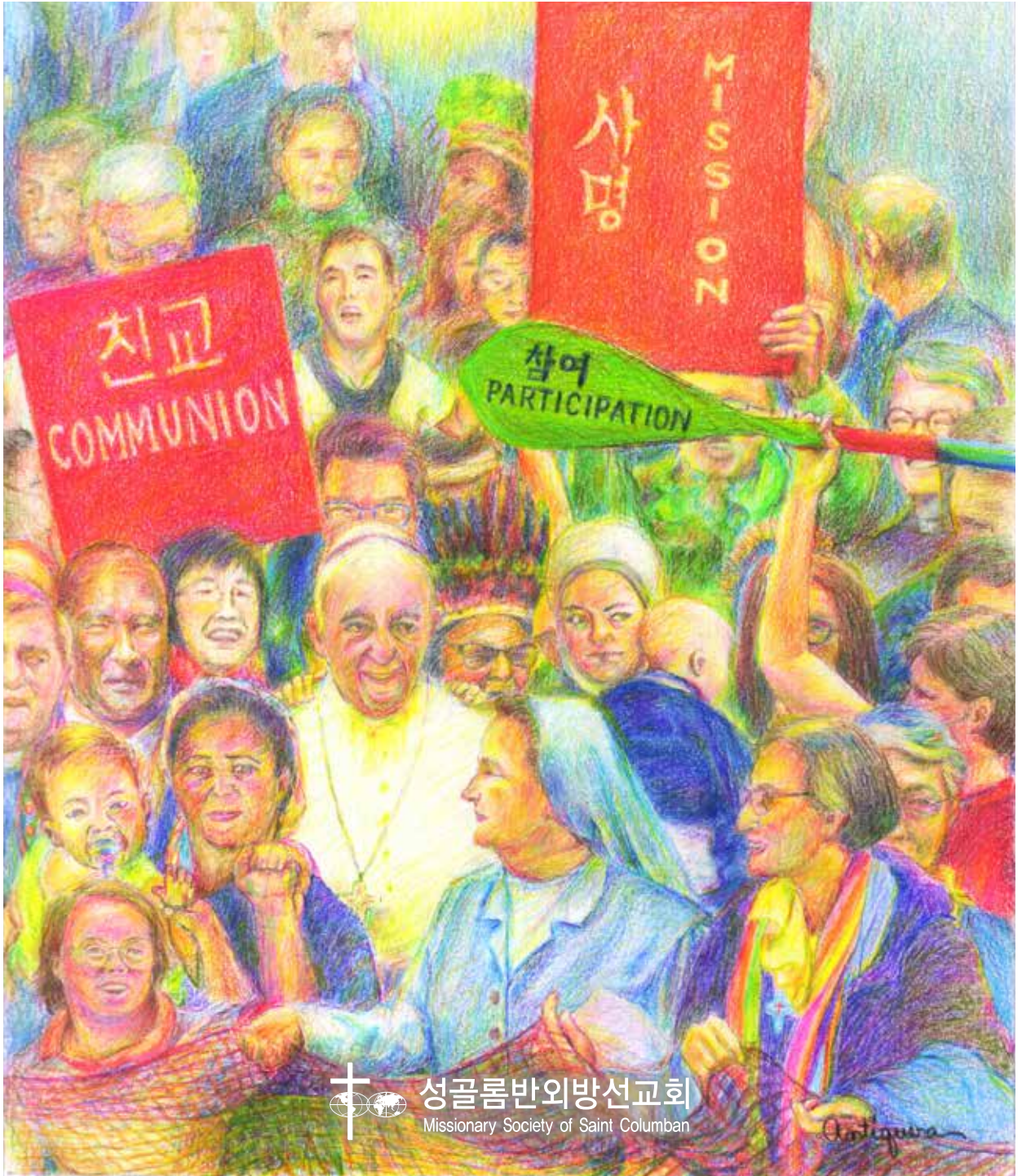


골롬반 선교

2022년 여름·가을호 vol.122

특집 | 시노달리타스_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시노달리타스와 소음?

안인성 패트릭 신부·본지 편집장



제가 사는 동네 이웃들에게서 자주 듣는 불만 중 하나는 소음 공해입니다. 건설 현장, 공장, 중장비, 도로, 큰 목소리로 호객하는 사람들, 선거 운동하는 후보들, 온갖 사람들과 다양한 그룹(종교 기관 포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소음은 발생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때로 더 많은 소음을 내는 것만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시끄러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치며 때를 쓸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

할 때까지 하려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혼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가폰을 잡은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이러한 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슬프게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시끄러운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웅얼웅얼하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분주하기만 한 활동도 소음을 만듭니다. 미사 때 침묵하며 묵상해야 하는 순간조차도 깨트리곤 합니다. 마치 하느님께 내 말을 들으라고 소리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틈이 있을까요? 묵상, 이 심오하고도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일 또한 현재 우리 교회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 과정의 성공은 묵상적 경청과 침묵에 달려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서 『꿈꾸자-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2020)에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시노드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정해진 의제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대립하는 입장에서 경쟁하고 의견을 다툼으로써 합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만나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똑같은 존재라는 일치성을 믿으며, 우리에게 드러내시려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골롬반 선교회의 희망은 본 선교잡지를 통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더 넓은 시각으로 독자들을 초대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특집 기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경험을 숙고하면서(토마스 오라일리 신부), 시노달리타스의 기본 정신을 되짚어 보고(최현순 교수),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가톨릭 인구 변화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봄(안인성 패트릭 신부) 새로운 교회로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방으로 간 이들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대만, 아일랜드, 칠레, 페루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팎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희망을 키워가는 선교사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휩쓴 물난리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골롬반 선교』는 피조물이 울부짖는 현장에서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전교구 강승수 신부가 생태적 회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선교 여정의 동반자를 만나는 지면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골롬반 후원회원의 나눔을 담았습니다. 이번 호부터 한 편씩 선교사에게 의미 있는 성경 말씀과 그 묵상을 씁니다. 페루로 첫 선교 실습을 떠난 이정락 신학생이 파견을 앞두고 나눈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봄, 아일랜드로부터 은 다니엘, 도 오웬 신부의 선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의 추모 글을 통해 두 선교사의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합니다.

모든 독자와 후원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상호 존경하고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차례

02 마음을 여는 글 | 안인성 패트릭
시노달리타스와 소음?

시노달리타스

04 토마스 오라일리

사도행전과 함께, 변방으로 가는 여정 1

06 최현순 대 데레사 왜 함께 가자고 할까

08 안인성 패트릭 웬 시노달리타스?

10 말씀 산책 | 오기백 다니엘

모든 것이 사랑

12 페루 이야기 | 양용석 프란치스코

열린 세상 열린 마음

14 생태적 회심 | 강승수 요셉

함께 꿈꾸어 보자

추모

16 봉정수 프란치스코

그리운 은 다니엘 신부님

17 김명옥 안나

도 오웬 신부님 고맙습니다

18 대만 이야기 | 석진욱 안토니오

사랑은 치유입니다

20 평신도선교사 | 이정자 크리스티나

라마 씨 가족의 꿈

22 칠레 이야기 | 조성근 제노비오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24 선교의 은총 | 장영민 레이문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26 신학원 | 이정락 베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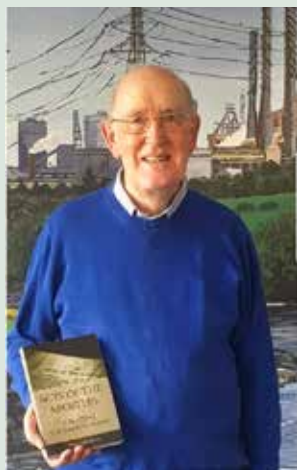
첫 선교 파견을 앞두고

28 함께하는 여정 | 이흥재 미카엘

LA 한인과 골롬반 선교사들

31 후원회

32 골롬반 소식



토마스 오라일리
Thomas O'Reilly 신부
번역·배영재 요세피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7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파키스탄과 영국에서 선교했다.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한 후에는 아일랜드의 성골롬반신학교와 키미지선교대학에서 가르쳤다. 2021년, 책 『사도행전-오늘날 선교를 위한 독서Acts of the Apostles-a reading for mission today』를 썼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도행전과 함께

변방으로 가는 여정 1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야말로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를 사는 교회가 향하기를 바라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가는 여정”을 걷는 교회는 교회의 변방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변방으로 찾아가야 하며, 그곳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나는 본 글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함께하는 여정에서 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를 사도행전에 비추어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준다. 먼저, 우리는 이방인인 코르넬리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질문을 하게 했는지 생각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심을 매우 극적으로 전달한다(사도 10,1-11,18 참조).

유대교 주변부(변방)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코르넬리우스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의심 없이 곧바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새로이 형성된 유대교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있던 베드로는 하느님의 의중을 이해하거나 따라가는 것을 매우 버거워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혼란스러워했으나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따르게 된다. 보통 코르넬리우스의 개종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회심, 즉 하느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정한 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베드로가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유대교적 정체성과 문화가 뿌리깊이 자리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의 회

심은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보여주신 환시와 성령의 활동, 코르넬리우스가 천사로부터 전해 받은 말을 베드로가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시자, 베드로가 자신을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처음에 거부했었다는 말부터 먼저 한 후 코르넬리우스가 본인의 종교적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코르넬리우스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세례가 이뤄지기도 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수범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 강림절에 겪은 일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성령께서는
변방을 통해 말씀하시므로
그곳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
즉 소수자, 이주민, 불의와
인종차별을 겪는 피해자,
현 사회경제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 일부 신자들은 베드로가 엄격한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과 어울렸다고 그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의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는 대신 주변부에서 했던 자기 경험을 차근차근 공유한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도 처음에는

전통적 관례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집으로 이끌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속되고 더럽고 부정한 곳”에서도 똑같이 성령께서는 활동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따져 물던 신자들의 비판은 하느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뜻밖의 놀라운 일을 찬미하는 노래로 바뀌게 된다.

코르넬리우스 이야기는 폐쇄적인 민족 집단으로 남을 위기에 처한 예수님의 신봉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이 모든 인종, 문화, 계층에 열려있는 포용적 공동체임을 깨닫도록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전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관점에 도전한다. 공동체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만 성령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하느님께서 구원자로서 당신의 면모를 드러낼 장소로 변방을 선택하셨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라는 공동의 여정을 함께하며 시도드 교회, 즉 성령의 인도와 권한을 부여받은 포용적인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변방을 통해 말씀하시므로 그곳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 즉 소수자, 이주민, 불의와 인종차별을 겪는 피해자, 현 사회경제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성직자 중심 교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성, 젊은 평신도, 소수 민족 신자, 냉담자, 성직자에게 학대당한 피해자, 그리고 교회의 도덕적 기준에서 비정상적이라며 인정받지 못하는 신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들이다. ✠

*12월 겨울호에 〈변방으로 가는 여정 2〉가 이어집니다.



최현순 대 데레사

평신도 신학자이며 서강대학교 전 인교육원 교수이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및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 『은총』, 『시노달리타스』 등을 썼다.

왜 함께 가자고 할까

내년(2023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를 향해 가면서 각 지역교회는 시노드를 통하여 실제로 시노달리타스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했고, 이것은 많은 신자와 목자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각 교구 단계의 시노드가 마무리된 지금, 우리는 잔치가 끝난 후의 정적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재확인할 때가 아닐까?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시노두스(synodus)에서 유래했고, 또 그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노두스 “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다. 정확히 말해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삶과 활동 방식”을 뜻한다. 교회가 지상에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시노달리타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

어원이 말하는 것처럼, 시노달리타스는 근본적으로 “함께 감”을 뜻한다. 그런데 이 ‘함께 감’이라는 말에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들어 있다. ‘누가’에 대한 답은 교

회, ‘하느님 백성’이다. 이 개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선언한 교회 모습이며 기본적으로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품위와 존엄성을 지닌다.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각 지체를 형성하여 몸이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에서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의 존엄성은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들 사이에 어떠한 상하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1코린 12,12-27 참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몫이 있다는 뜻이며, 각자가 그 몫을 해줄 때 몸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주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교회이되, 주체는 “주체들의 주체”이다.

이 주체들은 함께 가지만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 그것은 충만한 구원, 거룩함 자체이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이 저마다의 길에서 자기 몫을 하며 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

이 여정은 교회 구성원의 삶과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삶과 활동 속에서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하

“시노달리타스는 근본적으로 “함께 감”을 뜻한다. 그런데 이 ‘함께 감’이라는 말에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들어 있다. ‘누가’에 대한 답은 교회, ‘하느님 백성’이다.”

시고 성사로써 하느님과 친교,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누리게 하신다.

이러한 여정은 혼자 고립되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공동체성을 떨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정에 다양한 직무들, 특히 교계제도를 주셔서, 하느님 백성이 “자유로이” “질서 있게”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목자와 신자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협력과 화해성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이 공통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가는 여정을 시노달리타스라고 한다. 시노달리타스를 살기 위해 자신과 다른 이의 품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노달리타스에서 강조되는 것이 경청인데, 경청은 이 상호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노달리타스는 현대 교회에 덧붙여진 개념이 아니라 본래부터 교회가 교회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모습, 질서 있지만 저마다 자유롭게 제 몫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복음선포 사명을 함께 수행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다. 지금 교회는 이 모습을 새롭게 살아가자고 초대하고 있다. ✠



세계주교시노드 로고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안인성 패트릭 신부

『골롬반선교』 편집장이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1987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파견되어 서울, 전남 영광, 광주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생태와 환경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원 시노달리타스?

가톨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인구 분포 면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겪으며 제도적 정체성과 위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변화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응답한 교회의 노력으로 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지닌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교회는 전통적 기반인 제국주의 권력과 금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복합적이고도 극적인 인구 분포 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포한 시노달리타스의 요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과정은 오래된 전통(사도 3장; 10장; 15장 참조) 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교회의 현실만큼이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과거는 많고 미래가 없는 아름답지만 침묵하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인구는 세계 인구 6명 중 1명 꼴(약 17%)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수치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단일 조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성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오순절(첫 번째 성령 강림)에 다락방 2층에서 나와 밖으로 향하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을 때 상상도 못했을 현실입니다(사도 2장 참조). 그런데 이 인구 비율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는 가톨릭 인구가 줄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인구는 브라질, 멕

시코 다음으로 많으며, 이제는 유럽 전체보다 중국에서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이 더 많은 사실에서 세계 가톨릭 인구의 지리적 분포에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2011년 9월 12일 영국 BBC 방송 뉴스 참조).

1910년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약 65%가 유럽에 살았으나 현재 유럽인들은 24% 미만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 약 70%가 지구의 남부 지역(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에 살고, 그중에서 약 60%는 적도 아래 두 대륙에 살고 있는데, 이에 속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21%)는 라틴 아메리카(39%)와 유럽(24%) 다음으로 가톨릭 인구가 많습니다. 어떤 추정치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신자 수가 지난 100년 동안 6,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2019년만 해도 아프리카 가톨릭 신자는 830만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1억 7천만 명 이상인 이 대륙의 신자가 205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세계에서 10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국민의 47.3%).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과정을 공포하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새롭고도 다른 교회가 되어 가는 과정을 음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선교 활동의 열매로 나타난 인구 변화와 이동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교회 안팎 세속주의자들은 “교회는 끝났다, 힘이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관론과 달리 우리 교회는 조직으로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활력 넘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성공적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권력과 금융의 중심(유럽과 북미)의 관심 밖에 있는 여러 문제에 연대하는 교회입니다. 예컨대 각 나라 세계 주교 회의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인 태평양의 작은 섬들-오랫동안 중심부에서 소외되었던 변방-에 사는 형제자매들(전 세계 가톨릭 인구의 약 0.8%)과 연대하여, 살아있는 교회로서 행동하도록 전 세계 교회를 이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반구 출신 첫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임 교황들과 다른 의제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 초대를 “만남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만남의 예술가가 되어 하느님 백성의 활기찬 다양성을 음미하고 감탄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

■ 교황 프란치스코, 2021년 10월 10일,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연설

■ 본문에서 사용한 통계 자료는 바티칸 통신사(피데스)가 2021년 10월, 세계 전교의 날 95주년을 맞아 발행한 “가톨릭교회 통계”(2019년 말 기준)를 참고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오기백 다니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에서 1975년에 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왔다. 광주대교구 흑산·목포 연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1980년부터는 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서울대교구 봉천9동 도시빈민사목 현장에서 활동하였다. 한 국지부장, 신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지부 선교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리라”(이사 43,18-19).

저는 “흘러간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지나간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골롬반회 공동체에서 어떤 때 본회의 결점과 모순만 부각하는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런 부정적 대화는 제 에너지를 낮추고, 희망을 죽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19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이는 매우 작고 놓치기 쉬운 이미지이며, 땅에서 새 생명이 돌아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작은 사랑의 행동, 친절한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야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바꾸고 자신감을 주는, 분명히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또한,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사랑의 행위를 가져오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환경과 기후 변화에 무관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들, 과거에는 침묵했으나 지금은 보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을 심어 주는 일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리라”(19절). 한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느님을 경험한 적



이 있는가?’ 열심히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골롬반 회원으로서 내 인생의 투신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떠돌아다니며” 보낸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죄책감으로 돌아보기보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인간의 나약함을 더 잘 이해하게 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연민이 많고 덜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 그 통찰력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때도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느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떠합니까? 저라면 질병이라는 사막에서 “생명의 물길”을 쉽게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사망한 아일랜드의 영성작가 다니엘 올리리(Daniel O’Leary) 신부입니다.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일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육화에 대해 깊은 믿음을 지녔던 그는 암을 포함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암의 악마성, 더러운 침대 시트, 성인 기저귀, 괴로운 화학 요법, 잔혹한 부작용과 씨름하면서도 종양 덩어리를 날려버려 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양이여,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은 여전히 우주 하느님의 자

녀요, 창조 신비의 참다운 자녀이며 육화한 사랑의 자녀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나무였던 것처럼 정확히, 똑같이, 나의 종양인 당신은 내가 ‘자유로이 받아들여야’ 하는 육체의 종양입니다. 당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으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끊임없이 내 입술에 가져다주어야 하는 잔입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당신을 껴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마중하라, 다니엘 올리리, 참사람되어(2021년 11월호) 147~150쪽 중에서

그가 눈감기 직전 의사는 “어떠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축복받았음을, 제 삶에 은총이 충만했음을 신뢰합니다.” 일기에 또렷하게 드러난 올리리 신부의 경험은 질병이라는 사막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



열린 세상 열린 마음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대교구 소속이며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서 2018년에 남미 페루로 파견되었다. 현재, 수도 리마 외곽 지역 까라바이요(Crabayillo) 교구의 대천사들(Los Santos Arcángeles)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다.

이곳 페루도 팬데믹 초반에는 미사와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사제관에서 드리는 미사를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여 비대면으로 신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을 지켜 가면서 많은 이가 성당을 자유롭게 찾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성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복의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 것 같아 희망이 느껴집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폐쇄된 면모를 보였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공과 내륙 교통과 통행 등 외적인 폐쇄는 인간의 마음마저 폐쇄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선뜻 도와주는 것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적응해 갔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제가 선교하는 본당도 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어린이와 구결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점차 이러한 활동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 지금은 개인과 각 공소와 본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공소 몇 군데를 새로 단장하게 되어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붕 공사를 거의 다 마쳤고, 다른 한 곳은 완전히 새로 짓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진행된 이 공사가 아마도 9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공소 밖이나 신자들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성사가 쉽없이 이어지도록 신자들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성사의 은총을 나누었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감염병,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모임을 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페루 교회 또한 함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되는 것은 “열린 세상, 열린 마음”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3~4장 참조).

우리 본당 공동체는 올해 초부터 시노드 정신을 살기 위해 세대 간 공소 간 등



본당 신자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 찾아 기도했을 때

다양한 그룹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노드의 정신인 “친교·참여·사명(선교)”을 주제로 흠어진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다시금 복음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본당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 각 그룹이 나눴던 의견을 신자 전체가 자리한 가운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폐쇄되었던 당사를 다시 떠올리면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 형제들이 죽어 가는데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때, 슬픔을 나눌 수 없어 각자가 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는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마음을 열면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조금씩 열린 세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 역시도 이곳 페루에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

함께 꿈꾸어 보자

강승수 요셉 신부



대전교구에서 생태환경위원장과 가톨릭농민회를 맡고 있으며,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일부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멸종위기종’이라고 한다. 어떤 생물학자는 우리가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이 금세기 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멸종까지 80년도 남지 않았다는 말이고,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도 실제 우리 삶은 이 위기를 크게 반영하지 못한 채 굴러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우리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젠가 게임’에 비유하기도 한다. 직육면체 나무토막 세 개씩을 엮갈려 약 30cm 높이로 쌓아 올린 다음, 게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하나씩

기후위기를 알리고 생태 보호를 촉구하는 거리 피켓팅을 하는 필자와 기후행동가들
출처: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빼내다가 마지막에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하나씩 뽑히는 나무토막을 각각의 생물종이라고 보았을 때 아직은 구조물이 서 있기 때문에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핏 괜찮아 보여도, 험거워지고 있는 지구 생태 구조물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6년 몇 개월이 남았다(독일 메르카토르 지구공동자원 및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2022년 보고서)는 경고가 무섭게 들린다.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빚어진 원인은 인류가 ‘지구와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쓰레기로 채워버려도 상관없는 듯 사고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지구와 관계를 먼저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대량학살(제노사이드genocide)’은 끝까지 처벌받아야 할 가장 중한 범죄이다. 나치가 저질렀던 범죄이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학살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상 저지르고 있는 학살을 짚어내야 한다. 그렇다. ‘생태학살(에코사이드ecocide)’이다. 인간이 지구에 저지르는 ‘생태학살’을 멈춰야 한다.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건설할 때 쓰이는 것,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제초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 대량 생태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을 하되 자연이 수용할 수 있고,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학살의 칼끝이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가 이를 알려 주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겪고 있는 폭염, 태풍, 산불 등이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와 톰 리빗카넥이 쓴 책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선택』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라는 장이 있다. 저자들은 이 장에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펼쳐지게 될 이상적인 세상을 그려 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가 2020년부터 10년마다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하여 2050년을 맞이하게 된다. (와우!) 그렇게 되면 2100년경에는 지구의 온도 상승이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1.5℃ 이내로 머물 수 있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모든 나라와 기업에서 나무 심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상 최대 나무 심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펼쳐진다. 도시에 나무가 많아지고 자동차는 적어지면서 도시 생활이 더 쾌적해진다. 거리 곳곳에 텃밭이 생기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생겨났다. 거의 모든 도시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세계는 주로 재생 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주택과 건물마다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공짜다. 사람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더 ‘지역적’인 것을 지향하여 지역의 농부와 생산자에게서 먹거리를 구매한다. 자원을 고갈하고 지구를 가장 크게 열받게 하는 식품인 동물 단백질과 유제품은 거의 먹지 않게 된다.

와! 멋지지 않은가? 이런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보고 싶다. 우리 함께 꿈을 꾸어 보자. ☘

은 다니엘 신부님과 인연은 23살에 신부님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던 시절, 여러 종파 교회를 다녀보다가 영광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성당을 찾아가 일 년 정도 교리를 받고 1978년 성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식 전 신부님 면담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문을 외우며 찰고를 준비하던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은 신부님과 일대일 만남은 처음이어서 무척 긴장했는데, 막상 대면한 신부님은 온화하셨고,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했던 걱정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은 포근해졌습니다.

당시 영광성당에는 6개 공소(법성, 백수, 염산, 군남, 영민, 흥농)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주일이 되면, 본당과 모든 공소를 다니시며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광성당에서 공소 미사를 매 주일 집전한 최초의 신부님이었습니다. 故 민수왕 신부님이 한센인 마을에 세운 영민공소에 은 다니엘 신부님이 주택을 지어 한센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고, 공소의 신자 수가 늘어나자 세 군데 공소를 증축하거나 신축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소형 트럭(현대 포니)은 가난했던 시골 성당의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그 차에 신자들을 태워 같이 가정 방문도 다니고 소풍도 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트럭 짐칸에

천막을 설치하시고선 “경찰이 차를 세우면 돼지 몇 마리 실었다고 할 테니 꿀꿀 소리를 내라.”라고 하셔서 모두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에 신자 300여 명과 서울 여의도광장에 갔던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 혼배 주례, 첫아들 유아세례, 어머니 세례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은 신부님을 기억하며 살려고 아들 세례명을 다니엘로 하였습니다. 고향 아일랜드에서 은퇴 생활을 하실 때 저는 신부님이 그리워서 그곳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신부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검소하시고 신자를 우선으로 두셨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영광성당 7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1981년 11월 7일 본국 휴가 때까지 영광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고, 본당에 신심 단체를 권유하시어 저도 레지오와 청년회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신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며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환경에서 신자들의 발이 되어 주셨던 신부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신부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니 인자하신 얼굴이 선합니다. 은 다니엘 신부님의 평안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그리운 은 다니엘 신부님

봉정수 프란치스코 후원회원
사진 제공: 봉정수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도 오웬 신부님 고맙습니다

김명옥 안나 후원회원 사진 제공: 김명옥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교목이었던 도 오웬 신부의 젊은 시절(위)
당시 신부의 학생이었던 친구들과 필자(가운데)

대학교 3학년 무렵(1966년) 도 오웬 신부님이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교목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영문학과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해 겨우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 숙제와 공부한 것을 봐주십사 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외비를 낼 생각도 안 했고, 아니 낼 돈도 여의치 않았는데 신부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저와 친구들을 좋은 식당에 데려가 밥도 자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학비를 내주셔서 무난히 졸업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님 덕택에 영어 실력이 점점 나아졌고 졸업한 뒤에는 모교에서 조교와 강사를 하게 되어 신부님을 자주 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는 가족을 위해 서울로 직장을 옮겨야 했고, 오웬 신부님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결혼 생활하느라 또, 남편 따라 외국에서 사느라 신부님 소식을 듣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국한 후 본당에 갔는데, 영어성경반을 골롬반회 신부님이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도오웬 신부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미 신부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 신부님은 주한 교황청 대사관의 일도 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을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2005년경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을 떠나신 후에는 아일랜드에서 본당사목을 하셨는데, 더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저희와 7, 8세 차이인데도 신부님은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부님을 따랐던 친구들과 만나면 신부님 걱정만 하며 코로나 끝나면 아일랜드로 신부님 뵈러 가자고 꿈도 꾸었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찍어 한국처럼 쉽게 문자로 보내고 신부님께 연락해 보려 했으나 쉽지 않아 용돈을 몇 번 보내드리고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여유가 있었는데도 왜, 신부님들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도와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하며 부질없는 후회만 하였습니다. 본당에서 만난 골롬반회 후원회원의 권유로 저도 후원회원이 되고, 또 주변에도 권유하며 신부님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도 오웬 신부님!

3월 중순 봄 신부님 축일 패트릭(파트리치오)의 날에 친구들과 학교 뒷산 봉이산에 올라 자주색 패랭이꽃 한 아름씩을 꺾어 드리면, 당신 고향에서도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며 좋아하셨지요. 돌아가신 지 몇 주 지난 어느 날 꿈에 예수님 같은 분 옆에 신부님이 계신 모습을 보였어요. 항상 웃으시던 그 천사의 얼굴로...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세요. 고맙습니다. ✠

사랑은 치유입니다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7년 사제 서품을 받고 그해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대만 신주교구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당> 주임으로 사목하고 있으며, 이주민·장애인 사목을 겸하고 있다.

“
사랑은 걱정이 없고 사랑은 즐거우며
사랑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통과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보다 하느님께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골롬반이 쓴 글 「사랑은 치유입니다」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로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기세가 약해졌고 우리도 익숙해지고 있으나, 코로나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치유의 은총입니다. 외적인 치유는 백신과 치료제로 할 수 있어도, 영혼과 마음의 상처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대만도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모든 성당이 봉쇄되고 미사가 취소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대만은 조금 늦은 2021년 5월경부터 한국과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미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외



온라인으로 미사를 송출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모임의 영성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다. 사진 제공: 석진욱

출 자제령까지 내려져서 저도 사제관 밖을 나가지 못하고 격리와 다름없이 몇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담당하는 장애인 센터의 학생(발달 장애인) 한 명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찾아가서 병자성사를 해 줄 수도 없고, 장례미사는커녕 화장을 마칠 때까지도 저는 방 밖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고작 전화 통화로 상황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방에서 미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무엇이랄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목회장님과 상의한 끝에 온라인 매일 미사를 시작하고, 레지오를 비롯한 각 모임도 온라인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물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평일미사도 이전보다 많은 신자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했고, 기도 모임 역시 대면으로 할 때보다 많은 신자가 참여했습니다. 비록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성체를 영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해 주어 저도 힘이 났습니다.

신자들의 높은 참여도에 고무되어 저는 코로나 직전에 시작했다가 중단된 한국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센터에서 격주로 하던 폐제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폐제 기도는 센터의 봉사자들과 장애인들과 한자리에서, 촛불을 켜 놓고 폐제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며 기도를 바치고 예수님께 축복을 청하는 모임입니다. 대면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이 모임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장애인 센터 가족들은 모니터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이어지면서 저도 코로나 이전만큼 다시 바빠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가 다가왔었지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당신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롬반 성인은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통과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입니다. 사랑보다 하느님께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코로나 이전, 장애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폐제 기도 모임을 했을 때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라마 씨 가족의 꿈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0년부터 11년간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돌아와 한국지부의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를 담당하였다. 이어서 2017년에 아일랜드로 파견되어 이주민, 난민 사목을 하였고, 2021년 한국지부로 발령받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난 사이가 아니어도 헤어진 후에 오랫동안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이 된다.

필자(맨 왼쪽)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여성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자존감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아일랜드 정부 방침에 의해 이웃집조차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던 당시 내가 활동한 난민 센터의 문도 굳게 닫혀 버렸다. 700여 명의 난민이 사는 그 넓은 곳에 코로나 통제를 위한 긴 울타리가 세워졌다.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중단되어 나는 그곳 친구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즈음, 나의 친구 라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티베트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과 함께 네팔에 와서 자리잡은 라마는 네팔 여인 락뚜를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부모님과 언제 만날지 모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자가 되었다. 내가 라마와 락뚜를 만난 곳은 난민 센터였다.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온 경제 난민들을 포함해 정치 난민, 시리아와 아프가니



라마 씨가 생전에 가꾸어 놓은 침터의 작은 공간



난민 침터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소풍 갔던 날

스탄에서 온 전쟁 난민 등 서로 다른 이유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전쟁 난민 신청자들은 비교적 쉽게 체류 허가를 받아 아일랜드 정부가 마련해 준 집으로 옮겨 가서 살 수 있지만, 경제 난민 신청자들은 오랜 기다림 후에야 겨우 허가를 받을 수 있고, 10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위험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 네팔에서 온 이 부부 역시 체류 허가증을 받기 위해 난민 침터에서 5년 넘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동안 사랑스러운 아들도 태어났다. 언젠가 아일랜드의 일원이 되는 희망으로 살던 이 부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 라마는 꽃을 좋아한 티베트 불교 신자였다. 내가 센터를 방문할 때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하이! 크리스티나!”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는 가족의 보금자리인 침터에 화초를 가꾸었고,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의 방 벽에 걸린 사진 속 인물인 달라이 라마를 내가 알아보자 달라이 라마가 자기 삶의 지주이며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가 침터 입구 작은 공간에 꽃을 심으며 소박한 소망을 들려주었던 날이 생각난다. 비슷한 처지를 사는 이웃들의 삶이 그 꽃처럼 빨리 활짝 피길 바란다고 말하던 그의 얼굴은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듯하면서도 웬지 슬퍼 보였다. 그에게 꽃을 가꾸는 일은 막연한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인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나는 특별 허락을 받아 난민 센터에 들어가 아내 락뚜를 만났다. 그녀는 얼마 전에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던 것과 아들 손을 잡고 숨을 거둔 남편을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위로했지만, 남편을 기억할 때마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그녀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

라마의 장례 절차는 복잡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모자라는 장례 비용은 이웃 친구들과 골롬반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빠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엄마 말을 듣고 어린 아들은 다시 못 볼 아빠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라마는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세상을 떠난 지 열이틀 만에 홀로 부모님이 계신 네팔로 돌아갔다. 난민 신청자들은 고향 가족에게 일이 생겨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일랜드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내 락뚜도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아일랜드에 남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지난 5년 세월만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그토록 기다렸던 라마, 지금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억 안에 그리움으로 남아, 못다 이룬 소박한 꿈과 희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있을 거라 믿는다. ✠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로 2008년 칠레에 파견되어 3년 동안 살았다. 2011년 본회에 입회하여 2019년에 사제품을 받고, 올해 1월 사제로서 다시 칠레에 파견되어 현재 산티아고 교구 성 마티아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다.

이른 아침, 옆집에서 크게 틀어 놓은 한국 발라드 노래에 잠이 깬는데, 문득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레에 돌아가서 행복한 선교사로 살겠다는 다짐과 달리 이곳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신도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일했던 십여 년 전만 해도 모든 공소가 젊은이로 가득 차고 생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칠레교회는, 특히 제가 사는 가난한 동네는 사제들의 성추행 문제로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났고, 코로나로 대부분 신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새로운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 2주쯤 지났을 때 본당 신부님이 코로나에 걸려 유아세례를 시작으로 주일미사 녀 대를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십 년 넘게 스페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하느님께서 보우하사,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성당은 안 나와도 믿음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신자들과
행렬 예식을 했을 때



필자가 평신도선교사 시절, 쓰레기 산이었던 이곳에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십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었다!

잘 간직하고 있어서 유아세례, 첫영성체, 견진성사를 원하고, 장례 때 사제가 꼭 참석하기를 청합니다. 성전은 비어 있어도 해야 할 성사는 넘쳐나는데, 할아버지 신부님과 저와 둘이서 힘에 부친 것이 사실입니다.

사순시기와 성주간에 신부 둘이 공소 여덟 곳을 다니며 전례를 다 마치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를 거의 죽은 듯 지냈습니다. 환경과 문화에 새로 적응하느라 그런지 몸은 꽤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 보이는 이곳 교회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함께 사는 신부님과 저는 우리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찌 손써 볼 수 없을 정도로 힘겹기 때문인지 대화의 끝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자. 최선의 행복을 찾아 최대한 기쁘게 살자."로 마칩니다.

평신도선교사로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 나섰는데 그건 쓰레기로 뒤덮인 공소터를 정원으로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돌을 골라내고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저는 사제성소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히브 12,1-2).

칠레에 도착하자마자 그 공소부터 찾아갔습니다. 워낙 척박한 땅에 주변에도 쓰레기 천지여서 큰 기대 없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던 그곳에 하느님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이름을 딴, 매우 크고 아름다운 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벅차올라 한참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신자들이 전례를 바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코로나 공포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교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 조성근 제노비오 선교사제는 이른 아침에 들려온 한국 가요에 눈물 흘리고 10명도 참여하지 않는 공소 미사를 드리며 한숨을 쉬며 지역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지만, 제가 달려야 할 길을 그저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장영민 레이몬드 신부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8년, 호주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원주교구 형성·남천·용소막, 서울대교구 도봉동, 수원교구 원곡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한국지부 신학원의 원장, 부원장, 미국 시카고 골롬반 국제신학원 부원장 등 20년 가까이 신학생 양성자로 일했다. 2010년에 호주로 귀국하여 후원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1명,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파견된 새 사제들 각각 1명, 8명과 1969년 가을,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명도원(편집자주: 작은형제회가 운영한 한국어 교육 기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자리)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선생님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관습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원주교구 황성성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본당 신자 대부분은 농부였습니다. 강원도 농촌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 많았습니다. 소와 함께 쟁기질로 밭을 갈고,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밭으로 벼를 베고, 젊은 농부가 무거운 짐을 얹은 A자 모양 틀(지게)을 등에 메고 가고……. 이 새롭고도 정겨운 모습이, 시간이 흐르며 농법이 현대화되고 트랙터 등 기계가 사용되면서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황성성당에서 임기를 마친 저는 황성 풍수원성당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원주 신림면에 있는 용소막 성당에 보내졌습니다. 제가 두 본당에서 사목할 당시만 해도 성전에 의자가 없어서 신자들은 윤을 낸 마룻바닥



강원도에서 본당사목을 했을 때(출처: 호주 골롬반회)

에 앉아서 미사를 드렸는데, 한쪽은 형제들 반대쪽에는 자매들이 앉았습니다. 이 두 본당에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풍수원성당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한 곳이고, 신자들은 과거 박해 시절에 숨을 곳을 찾아 들어온 천주교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교구를 이끌던故 지학순 주교는 인권 탄압을 하는 정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 분이었는데 그 때문에 투옥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표현으로 원주교구에서 일했던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수역을 길렀고, 지 주교의 석방을 위해 많은 사제, 수도자, 신자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학순 주교가 있는 원주교구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임한 곳은 제 고향인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롬반회 후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 저는 멜버른으로 이주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미사를 맡으면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과 인연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한인 가족들과 부활이나 성탄 때 만나 미사를 드립니다.

멜버른에서 십 년을 보낸 후 저는 한국으로 다시 발령받아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故 모 미카엘 신부가

사목하던 수원교구 원곡성당에 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공단 가까이 위치한 이 본당에서 노동사목을 주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부임지는 서울에 있는 골롬반회 신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양성자로서 그곳에 가기 몇 해 전, 본회는 선교지의 젊은이들을 골롬반 선교에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 신학생들과 우리 양성자들은 서울 신학원에서 살며 양성 과정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도전이 많았지만, 신학생들은 준비를 잘 마치고 서품을 받은 후 골롬반회 선교사제로서 세계 각지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 중 하나는 근처에 산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몸과 정신을 일신하며 보낸 월요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서울 돈암동에서 살았던 덕분에 골롬반 수녀님들, 평신도선교사들, 그리고 후원자들과도 가까이 교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12년 전 다시 호주로 온 저는 호주 골롬반의 집과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만났던 친구들, 그곳에서 받은 사랑, 포용, 지지를 늘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

김영민 신부 사제서품식에서 안수를 하는 필자(2011년)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2022년 여름·가을호

첫 선교 파견을 앞두고

이정락 베라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대구 출신이며 2017년에 입회하여 서울 대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2020년에 첫 서약을 하였다. 올해 남미지부 페루로 첫 번째 선교 발령을 받아 8월 초 리마에 도착, 약 2년간의 선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골롬반 신학생들은 신학교 학업 외에도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심리 상담과 그룹 작업에서는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를 바라볼 때의 감정, 태도, 욕구 변화 등을 이야기 나눕니다. 각자가 지닌 사고 패턴, 행동 유형, 의식 혹은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알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내적 외적 정화와 쇄신의 기회로써 나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워줍니다. 또한, 저희는 매주 선교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분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인데 선교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람과 만남 안에서 삶을 배우는 장입니다.

지난 학기 때 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 나눔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선의로 저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시던 봉사자 자매님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고, 그제야 저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두 차례 거절하고 사양하는) 습관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만약 지금 여기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첫 서약을 하는 이정락 신학생

가 선교지(페루)라면, 내 방식을 추구하기보다 그곳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이를 내 생각과 방식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새롭게 마주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방식에 발맞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성찰과 함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요한 1,14)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느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시는 그 사람의 방식으로 ‘동화’되어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각자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에 서로 “동화”되어야 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저는 남미 페루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연 낯선 선교지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찾아온 두려움과 막연함은 ‘죄 많은 내가 선교한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서 자신을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여기는 어둠의 늪에 빠져들어 사순시기 내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베드로와 반면에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정의로운 심판관이 되어 자신을 단죄한 유다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삶인 듯하지만 전혀 달랐던 두 제자의 생애를 바라보는 동안 하느님께서 제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며,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당신을 따라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

니다. 이 묵상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손을 잡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방문해 주시는 듯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체험으로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으며,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열정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는 부족하기에, 하느님께서 더 큰 은총을 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양성과정 안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그분을 따라 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움직이실 수 있게 비움의 자세를 늘 취해야 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사랑이 제 영혼을 움직이시도록 만들겠다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에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골롬반 성인은 스스로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느님께 큰 사랑의 치유를 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청합니다. 하느님을 따라 걷는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나 악마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사랑을 선택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약한 태도에 빠지지 않아야 함을 상기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은총을 청합니다. ✠

LA 한인과 골롬반 선교사들

이흥재 미카엘

미국 골롬반회
LA 한인후원회원

고향 공주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을 따라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신부님은 저희를 보면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주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공소에 오시면 보리밥을 잡수셨는데 그 모습에 어린 제 마음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몰래 성당을 다니며 신부님께 교리를 받고 영세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어머니께 들켜 버려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상 성당에 가고 싶었지만 여의찮았고, 영세 날짜를 받아 놓고 못 받은 사정이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정착하느라 바쁘게 지내다가 지인의 권유로 ME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함께 한인 교포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로만 소통하는 성당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신부님이 계신다는 성 그레고리오 성당(LA 코리아타운 소재)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편집자주: 많은 이민 가정의 자녀



LA 골롬반후원회에서 방학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멕시코 선교 봉사 프로그램을 했을 때(맨 오른쪽이 필자)

사진 제공: 미국 골롬반회 LA 한인후원회

들이 부모와 언어가 달라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골롬반회가 사목하는 성당에서는 여러 언어로 미사를 해왔다.)

당시 본당 신부님이었던 모 안토니오 신부님은 “잘 오셨다!” 하시며 우리 가족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2년에 그토록 바랐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자 교리 경력자(?)로 교리반 반장이 되었고, 자연스레 성당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본당 신부님들인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명 프란치스코, 모 안토니오, 양 노엘, 허 프란치스코, 나 데릭, 차 가를로, 노 마일스, 부 마르티노, 백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구에 본당을 짓고 사목하시다가 미국에 한인들이 늘어나자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들이며,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우리 한인 성당의 아버지 신부님입니다. 70년대 후반, 신부님께서 몇몇 신자들과 함께하시면서 교포사목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교우인 이 시몬 형제님은 명 신부님이 당시에 안 계셨다면 우리 한인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골롬반 신부님들은 제가 어릴 적 고향 성당에서 만났던 그 신

부님처럼 검소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사람들이 부탁하면 노(No)!가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책임지고 다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찮으시다고 하면 자녀가 신자가 아니어도 병원으로 가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병원 환자들을 돕도록 교육도 해주셨습니다. 명 신부님 양 신부님은 한국에서 사목할 때의 본당 신자들을 수십 년 후에 만났는데도 세례명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제가 놀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신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모 안토니오 신부님은 묵묵하게 지켜봐 주시던 분입니다. 봉사자들의 숨은 선행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라남도에서 선교할 때 신안의 섬으로 가정방문을 갔는데 방 한 칸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달걀을 대접해 주셨다고 합니다. 신부님 오신다고 귀한 것을 안 드시고 드린 건데 그만 상해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신부님은 차마 말 못하고 할머니가 물 뜨러 간 사이에 버리셨는데, 그 일이 두 고두고 마음에 걸리셨는지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모 신부님의 선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같고 신부님도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뭘 부탁하시면서도 “미카엘 할 수 있어?” 하고는 그렇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신부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년에 선종하신 후에는 모 신부님 사진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롬반 성당이었던 곳을 이제는 대부분 LA교구가 담당하면서 골롬반회를 모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교포들을 위해 일한 골롬반 선교사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후원회원 활동을 하고, 주위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LA후원회는 오 토마스, 오 엘리사벳 님 외 여러 형제자매가 열심히 토대를 마련했고 지금도 함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와 후원회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 많지만 이름을 모두 열거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리 후원회는 은퇴하신 신부님들과 가난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후원과 기도로써 동반합니다. 특별히 중남미에서 일하는 한국인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완수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지 않지만, LA와 한국에 계신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골롬반 선교에 함께하겠습니다. ✠

▶성 그레고리오 성당 교우들이 본당에서 사목한 골롬반 선교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 명판을 성당에 세웠다.

▼ 모 안토니오 신부 팔순에 한인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잔치를 했었다(꽃 든 이가 필자).



사진 제공: 이흥재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
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2년 9월~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	2일	7일	4일	2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3일	11일	8일	13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4일	12일	9일	14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9일	14일	11일	9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3일	28일	25일	23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7일	25일	22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8일	26일	23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9일	27일	24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30일	28일	25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8일	-	-	8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1일	19일	16일	21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20일	-	15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18일	-	20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산: 9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포, 순천, 전주, 광주: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회 7위 포함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마무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6월 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의 예비심사 법정 종로 회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13년 만에 한국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교황청 시성성의 심사입니다. 하느님의 종 81위 중에는 한국전쟁 중 총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한 골롬반회 선교사제 7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 요한·안 파트리치오·고 안토니오·라 파트리치오·진 아고보·고 토마스·손 프란치스코 신부

천노엘 신부와 엠마우스 공동체의 환경 보호 실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엠마우스복지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이 4월 25일부터 두 달간 “지역 주민 환경보호 생활실천 고(GO)고(GO)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한 천노엘 신부는 한 방송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기, 안 쓰는 전기 코드 뽑기... 이는 작은 행동입니다만 아름다운 행동입니다.”라고 말하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 보호 실천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였습니다.



CMB 광주방송 뉴스 화면 캡처

평신도선교사 서약식 및 파견미사

이지영 크리스티나·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가 휴가를 마치고 선교지 대만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출국을 앞둔 8월 15일 한국지부 본부에서 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주례로 드린 파견미사에서 이들은 각각 단기선교사 계약 갱신, 장기선교사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 손선영 카타리나 선교사가 장기선교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다가 평신도선교사 중앙코디네이터로 임명돼 홍콩에서 일한 손 선교사는 안식년을 보낸 뒤 미얀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사진 왼쪽).



신학원 소식

6월 18일, 한국지부 신학원 성당에서 지부장 서경희 신부 주례, 신학원장 김영인 신부 공동 집전으로 신학원 1학기 종강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맨 아래 사진). 미사 중에는 유기서원 갱신식, 첫 선교 발령(FMA·First Mission Assignment)과 영성의 해를 시작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파견 예식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하는 신학생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후원회 봉사자,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평신도선교사 등이 함께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외선교 실습을 시작한 이정락(왼쪽)·진가람 신학생

사진 제공: 권태문



영성의 해를 보내는 골롬반회 신학생들과 양성자들(필리핀)

종강미사에서 유기서원 갱신을 한 진가람 요셉 신학생,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이 8월 초 약 2년간의 해외선교 실습을 떠났습니다. 발령지는 각각 필리핀과 남미 페루입니다. 또한, 김진욱 사도 요한, 노승준 요한 바오로,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이 8월부터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신학생 3명, 양성 담당 권태문 신부, 크리스토퍼 카야미노 신부와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더 깊이 기도하고 수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낮선 문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만나며 정진해 가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임피제 신부 설립 옛 한림성당, 등록문화재 등재

6월 2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옛 한림성당 종탑”을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했습니다. 임피제 신부가 1955년에 건립한 옛 한림성당은 1999년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되어 현재는 종탑만 남아 있습니다. 임피제 신부는 전쟁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제주도 고유의 재료와 건축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자들과 성당을 지었습니다. 당시 도면과 사진이 보존되어 있어 자재, 축조 방식, 조형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등 근현대 건축물로서 건축 및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1955년 당시 옛 한림성당(왼쪽)과 종탑만 있는 현재 모습

안재선 신부의 <그림 강론> 제공 및 개인 초대전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그림 강론>을 매주 토요일 오후, 본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합니다. 주일 복음의 메시지를 문자와 언어가 아닌 그림 한 편으로만 전달하여 더 깊이 복음에 머물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재선 신부는 이번 여름, <여름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8/17~9/2, 서울 성북구 <더텐>). “당신 가까이 미술을 데리고 가다”라는 부제에 맞게 주택가에 자리한 카페에 무료로 전시하여 누구나 와서 미술을 감상하며 쉼을 얻도록 했습니다.



골롬반회 평화사목국 소식

남승원 신부가 5월, 서울대교구 민화위 주관 “북한이탈 주민 문화탐방-가족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행사에 동반하였습니다. 남한 정착 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북부하나센터 정착 도우미인 남 신부는 참가자들에게 “북에 가족을 두고 왔다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육체적 영적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에는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건의 모색>을 위한 남북하나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사진 왼쪽 발표자).



남승원 신부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협력분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남승원

선종한 골롬반회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선교했던 두 분의 사제가 고국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습니다.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정다운 이웃이자 따뜻한 목자로서 살았던 선교사들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 고인의 삶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은 다니엘 신부
Daniel O'Gorman

2022년 4월 3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향년 90세). 1932년 3월 4일 아일랜드 킬케니 출생. 1956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교구 중앙주교좌·한림·모슬포·신창, 광주대교구 영광·광주 중흥동·영암, 수원교구 장호원성당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임피제 신부가 성이시돌목장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 35년을 마치고 1992년 귀국하여 아일랜드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나반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사진 제공: 아일랜드지부



도 오웬 신부
Owen Paul Doyle

2022년 4월 10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향년 87세). 1934년 6월 29일 아일랜드 골웨이 출생. 1958년 사제서품 후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1961년부터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원주교구 삼척·춘천교구 묵호에서 본당사목, 춘천 성심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1999년부터는 아일랜드의 본당 등지에서 일했습니다. 아일랜드 나반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골롬반 선교

2022년 여름·가을호 vol.122



표지 이야기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난 사람들을 그렸다. 이 시대의 사람, 교회,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 시노달리타스라는 한배를 탄 우리가 친교, 참여, 사명으로 함께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여정을 표현했다.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서경희(스테파노) 신부
편집장 안인성(매트릭) 신부
편집위원 노혜인(안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소영(세실리아)
번역 배영재(요세피나)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동진인쇄



페루 리마에서 선교하는 지원사제 부재환 프란치스코(제주교구 소속) 신부가
골롬반회 선교 구역 중 하나인 이슬리나 지역의 무료급식소 '로스 투날레스'(Olla Común Los Tunales)를
방문해 공동체 봉사자들에게 식재료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부재환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